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3

Vol. 502



START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한 삶!  
청명한 기분으로 일상에 에너지를 채워보자.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계절의 시작은 봄이 움트는 3월이지요.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산책에 나서도 좋을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3월, 월간 <교정>이 당신의 즐거운 시작과 함께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3월호 (통권 502호) 62권 3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4 포토 이슈  
2018 전국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 주최 첫 명예교도관 위촉

## Colorful Think

- 06 Theme Column  
3월의 컬러, WHITE  
눈부시게 싱그러운 White의 미학
- 08 Theme People  
사람이 살고 있었네  
'슬기로운 감빵생활' 신원호 PD
- 12 Theme Talk  
의리와 욕심, 자부심의 삼위일체  
부산교도소
- 16 Theme Advice  
나를 찾는 시작



## Cheerfu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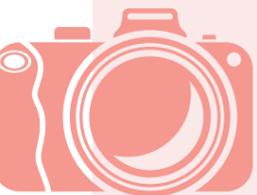
- 18 교정은 행복을 신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향해 가자아~  
평창올림픽 현장
- 24 아빠! 어디가?  
춘천아가새농장 체험  
춘천교도소 교도 임상묵 가족
- 28 어느 멋진 날  
봄비와 연극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김은희·정여경·윤혜영
- 30 패밀리 프로젝트  
아이와 함께하는 홈가드닝
- 32 습관의 건강학  
오후의 불청객, 식곤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34 히어로 코믹스  
교정맨의 활약
- 38 교정 글마당  
정읍교도소 교사 안상현



## Correction Story

- 40 교정 포커스  
배우 정웅인, 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식
- 44 교정 리포트  
회복적 사법 관점의 소년수형자 교정처우(下)
- 50 지상강좌  
교정학
- 52 교정 인사이드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연금술, GRIT에 주목하라
- 54 Book Mark  
봄날, 따뜻한 기운을 주는 책들
- 56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4 교정 스타그램  
시작을 담은 사진 열전
- 66 이달의 공연





# Photo Issue

3월, 가슴 벅찬 시작의 기운이 움트는 달이다. 교정본부는 또 다른 희망을 향해 다시 뛰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 눈여겨 볼만한 이달의 교정 현장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 사진 김도형

## 2018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법무부는 지난 2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박상기 장관을 비롯,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 및 근절방안'과 '보안근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참석자들이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한편,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해 교정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법무부 주최 첫 명예교도관 위촉

지난 2월 28일, 1월부로 종영된 t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인간미 넘치는 교도관 역할을 맡은 두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가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명예교도관은 교위 계급장을 수여받았으며,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더 자세한 이야기는 40page '교정 포커스'에서 이어집니다.



## 눈부시게 싱그러운 White의 미학

괴테는 “꿈을 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고 말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하얀 캔버스의 이미지와 닮았다. 간소하면서도 깨끗한, 조금은 두렵지만 설렘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이것은 흰색이라는 컬러만이 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감성이다.



### 간소화로 찾은 여유, 깨끗함

매일 새로운 광고가 쏟아지고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미니멀(Minimal)과 이즘(ism)의 합성어로, 최소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무조건 물건을 간소화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고 최소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버리지 못해 묵혀뒀던 낡은 물품을 정리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든다. 온전하나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물품은 주위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기증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면 일거양득이 되기도 한다. 정리를 통해 남은 물건들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깨끗해진 집을 보며 기분전환 할 수도 있다. 처음 입주하던 날의 설렘을 다시 떠올리며 정돈된 공간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미루기만 했던 새로운 시작에 도전한다.

### 아름다운 여백

하얀색은 단순하고 청결한 느낌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여백’의 의미도 있다. 큰 비중은 없으나 극의 안정감을 주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조연 배우처럼 하얀 바탕은 한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고 전체를 아우른다. 하지만 미술에서 여백의 역할은 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탕이 되는 흰 여백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빈 곳이 아닌 하나의 예술이 되기 때문이다. 공간, 면, 선 등 색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에서 여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화는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으로 서양화와 구분 짓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화의 특징은 여백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는 작품에 인물의 상반신만 담고 바탕은 칠하지 않은 작품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붓 선을 최소화하여 짙고 엷은 정도만 표현하였고, 인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백을 칠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도 그림은 마치 옷자락이 휘날리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이외에도 많은 동양화에서 여백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며, 독자의 상상력에 따라 해석되기도 한다. 사색과 풍류를 즐겼던 선조들에게 여백의 미는 지혜인 동시에 후손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다.

### 깨알 지식

#### ‘about WHITE’

예로부터 한국인은 삼베, 모시, 무명 등 흰옷을 즐겨 입었다. 잿물을 이용해 하얗고 부드럽게 세탁하였으며 늘 흰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백의민족’으로 칭했다. 이는 태양을 숭배했던 조선이 태양의 흰빛을 광명으로 여겨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추후 흰옷은 3.1절 일제강점기 항일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 사람이 살고 있었네

# 신원호

‘슬기로운 감빵생활’ PD



영화나 드라마에 교도소가 등장하는 일은 제법 흔하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갈등 혹은 처한 현실 등을 말해주는 장치일 뿐,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 작품은 지극히 드물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초까지 16부작에 걸쳐 방영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전혀 새로운 각도의 교도소 이야기로 방영 내내 그리고 종영되고도 한동안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작을 통해 믿고 보는 연출가로 인정받은 신원호 PD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교도소를 투과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덕분일 것이다.

###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 이야기

신원호 PD, 하면 사람들은 ‘응답’이란 단어부터 떠올린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두터운 팬층과 더불어 커다란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다. 그래서 신원호 PD의 근황에서 언제쯤 다음 ‘응답’을 볼 수 있을지, 이번엔 몇 년도의 이야기를 다룰 건지 주목하곤 한다. 이런 바람에 응답하듯 지난해 11월 그가 신작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고대하던 ‘응답하라’ 시리즈 대신 낯설고 의아한 ‘교도소’ 이야기와 함께.

“교도소라는 소재는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입봉한 정보훈 작가의 아이디어였어요. 못 보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못 보던 이야기를 찾던 중이었는데, 일단 못 보던 이야기에는 부합하는 소재였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교도소 이야기에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된 건 취재차 교도소 답사를 하면서였죠.”

드라마 제작에 앞서 충분한 취재과정을 거치는 신원호 PD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촬영에 앞서서도 1년여 동안 부지런히 취재와 답사를 다녔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취재에서보다 높은 빈도로 “진짜요?”를 남발했을 만큼 낯설고도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무엇보다 신원호 PD의

관심을 끈 건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사실 그동안 교도소가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많이 봐왔지만, 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와 저곳에 처음 들어가는 날이나 나오는 날의 기분은 어떤 것일지, 저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갈등에 대해 세세하게 조명한 작품은 없지 않았다. 그즈음이었을 것이다. 신원호 PD가 교도소 이야기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건, “죄를 지어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수용자), 직업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교정공무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 리얼리티가 실어준 이야기의 힘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신원호 PD가 보여준 디테일의 힘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일단 ‘핍진성(그럴 듯해 보이는 정도)’에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드라마의 메인 배경으로 나오는 서부교도소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등장인물들이 생활하는 2상6방은 모두 교도소 답사를 통해 섬세하게 재현해낸 것이다.

“법무부의 협조 덕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전교도소와 여주교도소, 동부구치소 등을 답사했는데요. 여주교도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본 풍경은 태어나서 봤던 단풍길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교도소 내부도 칙칙하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중 통창 구조로 되어 있어 채광이 좋더군요. 여느 교도소의 거실이 일렬로 쭉 늘어선 것과 달리 여주교도소는 살짝 대칭을 이루긴 하지만 마주보는 구조인 것도 새로웠죠. 그래서 여주교도소를 드라마에 등장하는 서부교도소 세트의 모델로 삼았어요. 드라마 속 거실인 2상6방은 교도소 같지 않게 산뜻하고 깔끔한 컬러가 돋보였던 동부구치소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점. 대표적인 예로 등장인물들이 주로 생활한 2상6방은 실제 교도소의 시스템과 똑같이 수용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철컥, 문이 잠겨 촬영 시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신원호 PD는 이 정도까지 섬세하게 세트를 완성하고 본 촬영에 들어갔지만 이후에도 ‘장님 코끼리 만지는데 양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고 말한다. ‘응답하라’ 같은 경우는 모두 살아본 시대의 이야기라 소품 배치나 연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경

험이 없다면 고증을 위해 촬영 중에 수시로 흐름이 끊겼다고. 가령, 수용자가 이감을 할 때 짐을 어떻게 싸서 나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짐을 들고 나가는지 신원호 PD를 비롯해 촬영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번번이 신원호 PD는 작가에게, 작가는 교도소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디테일이 드라마 흐름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장면이나 소품이 거의 없었던 건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이야기의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드라마 1, 2화가 방영된 후 가장 많았던 댓글이 ‘저건 진짜다’라는 반응이었어요. 디테일 고증을 통한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한다는 원칙이 시청자들에게도 통한 거죠.” 리얼리티에 대한 신원호 PD의 남다른 고집은 드라마 1, 2화의 배경이었던 구치소와 3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나온 교도소를 각기 별도의 세트로 만든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전까지는 어느 작품에서도 두 공간을 다르게 등장시킨 적이 없었으나 신원호 PD는 엄연히 다른 공간인 만큼 드라마에서도 구분해서 세트를 만들었고, 그런 수고와 노력은 곧 높은 시청률과 인기로 치환되었다.



“디테일 고증을 통한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한다는 원칙이 시청자들에게도 통한 거죠”



**법무부의 협조로 완성도를 높인 디테일**

이번 드라마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동안 법무부는 제작팀의 제3의 스태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재과정에서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를 답사할 기회를 제공한 건 물론이고 고증이 필요할 때마다 공식적인 루트 역할을 해준 것. 무엇보다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도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릭터를 좀 더 치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커다란 도움을 얻었다.

“법무부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된 건 분명하지만, 사실 협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하나 더 늘었다는 부담도 있었어요. 드라마를 통해 교도소에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야기 흐름상 드라마 초반부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보면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니 기다려달란 당부를 미리 건넸죠.”

이를 입증하듯 ‘슬기로운 감빵생활’ 마지막 화가 방영되고 난 후 신원호 PD의 핸드폰은 설 새 없이 울렸다. 취재 시 인터뷰에 도움을 주었던 교정공무원들이 고마움과 함께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거였다.

교도소 바깥에서 취재한 내용에 살을 붙여 에피소드로 내보내기도 했다. 교도소 경험을 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다 설명 경험이 있다 해도 굳이 나서서 인터뷰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인터뷰 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신원호 PD는 대신 몇 다리를 거쳐 만난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살뜰하게 반영했다고 말한다. 고박사가 딸에게 수감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항공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에피소드, ‘나는 오른손이 가해자, 왼손이 피해자’라는 해룡이 대사는 모두 그렇게 얻은 소스였다. 드라마 속 무기수 또한 수감생활을 한 이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각색해 드라마에 녹여냈다.

**현실 왜곡 없이 슬기로운 결말**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들어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담았다.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신원호 PD는 드라마에 대해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갇히게 된 김제혁의 적응기이자 최악의 환경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부활기이며, 교도소라는 또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성장기”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범죄자 미화’에 대한 우려에도 일찍이 췌기를 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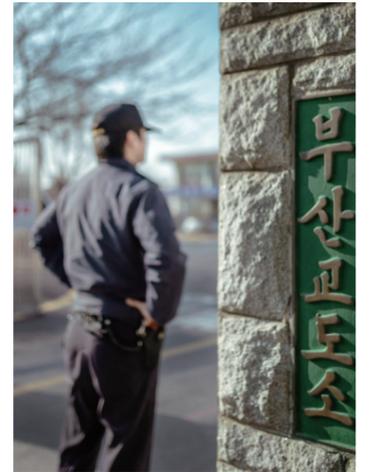
“기획단계에서부터 범죄자들에 대한 미화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팩트를 간과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이따금씩 그들이 살인, 마약, 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면을 삽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범죄자 미화를 우려하던 시청자들이 후반부 들어 오히려 신원호 PD를 말리려는 기이한(?) 분위기까지 조성되기도 했다. 마약사범 해룡이가 출소 직후 다시 마약에 손대면서 곧바로 재수감되는 충격적인 장면과 문래동 키스트가 아들에게 간식을 해준 후 감정이입할 새도 없이 이감 조치함으로써 처음엔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으나 결국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이라는 평을 받았다.

물론 신원호 PD가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앞에서 언급했듯 이번에도 사람이었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덕분에 장소를 막론하고 추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따뜻한 감동을 선물 받았다.

# 의리와 똑심, 자부심의 삼위일체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는 뛰어난 무도인들의 집합소이자 업무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정기관이다. 강성 수형자들이 많아 직원들은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인 시간을 보내지만, 이들 마음속에 박힌 것은 '내가 바로 부산교도소 교도관'이라는 자부심이다. 언제나 모두의 가슴속에서 금강석처럼 빛나왔던 부산교도소, 그 근간이 궁금해 부산으로 내려가 보았다.



## 일 잘하는 '싸나이'들의 집합소

부산교도소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도소이다. 1947년 9월 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처음 개소하였다가 1971년 3월 김해교도소로 이름을 바꾼 뒤 다시 1987년 12월에 김해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산교도소는 과거부터 소위 말하는 다루기 힘든 수형자들이 많은 곳으로 이름이 난 기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한 직원들은 다른 곳에 가서도 '부산교도소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오늘 부산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이들의 얼굴에서는 부산교도소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내비친다. 오늘 모인 교도관 중 가장 오랜 선배는 사회복지과의 김승우 교위이다. 부산교도소가 좋아 24년을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

키고 있는 이곳의 든든한 대들보 같은 존재다. "과거의 부산교도소는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 수형자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수형자끼리 싸우고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반면 직원들끼리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두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선배들이 버스에서 술 한잔하자고 하면 다들 우르르 따라 내리곤 했지요." 김승우 교위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산교도소도 참 많이 바뀌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승용차를 갖고 다니지만, 과거의 한잔 술 대신 활발한 동호회 활동으로 정을 나누고 수용질서 역시 전과 비교해 비할 데 없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 재주꾼, 인재들이 모였다

동호회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해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정훈 교위가 안 나설 수 없다. 흰칠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에게 동호회 활동이란 '직급이 나누어진 직원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통해 형, 동생이 되는 즐거운 통로'이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개인 운동이지만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운동이기도 해요. 제 우승은 태권도 동호회 회장님과 코치들이 팀워크를 굉장히 잘 유지해 주시고 회원들 모두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제일 잘한 거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부산교도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온다. '팀워크.' 관리보다 교정·교화에 방점을 찍는 추세에 따라 부산교도

소의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수형자들의 비행이나 공격성향이 다른 일반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부산교도소에서 임상심리사인 이승욱 교도의 역할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이유이다. "초범이 아닌데 과거 범죄경력보다 결과가 너무 타당하게 나오는 경우, 좋게 보이기 위한 의도성향이 크다고 판단,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검사를 다시 해요. 또 강력범죄자들이 작업장을 오갈 경우 보안과나 타과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지요." 임상 심리가 수형자들의 성향을 판단한다면 집중인성교육 담당자인 김승우 교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분류된 그들이 사회로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엄격함과 따뜻함을 적절히 구현하면서 인간적으로 대면, 수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물로 소문난 김승우 교위는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함부로 살아선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 교도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뚝뚝 뚫었다

부산교도소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희망CNC작업장이 그것이다. CNC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볼트, 밸브 등 모두 15종의 군수품을 작업을 통해 생산·납품하는 작업장을 일컫는다.

“희망CNC작업장은 2015년부터 법무부와 방위사업청 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이음사업으로 양질의 군수품을 조달함과 동시에 수형자들에게는 사회복귀능력을 배양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을 이어주는 의미를 가진 사업입니다.”

2015년 말에 시작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희망CNC 작업장은 작년에만 군수품 납품으로 2억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4~5억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전병규 교사가 자랑스러워 얘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 중 가장 막내는 불과 석 달 전에 첫 발령을 받아 온 하동철 간호서기이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소로 들어온 그에게 부산교도소는 아직은 별천지 세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정을 붙여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민간병원은 남자간호사가 오래도록 일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동기나 친구들이 교도소를 새 일터로 삼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역시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인들처럼 수형자들 옆에 있으면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도소 특유의 시원시원한 분위기 덕분에 업무만족도가 높다는 하동철 간호서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다섯 교도관의 열띤 수다(?) 속에서 부산교도소의 숨은 저력이 다 나왔다. 남다른 팀워크, 어려움을 이겨내는 욕심, 끈끈한 동료애, 업무 능력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굴러가기에 바로 오늘의 부산교도소가 만들어졌다는 확신이 드는 건 비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한결같은 부산교도소의 건승을 빈다. 부산교도소 파이팅!

## 부산의 가 볼만한 곳

### 이기대 해안 산책로

부산하면 태종대, 해운대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기대 해안 산책로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이기대는 임진왜란 때 술 취한 왜장을 꺼안고 함께 물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 수영의 두 기생이 묻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위가 해변과 만나 독특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광안리해변과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코스다. 부산 5대 명소로 꼽힌다니 꼭 한번 걸어볼 것.



◀ 이기대 해안 산책로



부산 송도 ▶

### 송도

인천 송도가 아닌 부산 송도 역시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다. 국내 최대 높이인 케이블카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부산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 구간을 하늘에서 사방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름산책로라고도 불리는 스카이워크가 국내 최대길이인 365m나 구성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Theme Talk

### 시작하였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교위 김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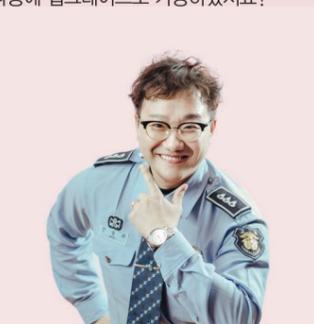
교위 이정훈

보안과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귀과에서 집중인성교육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준 PPT 자료를 토대로 수형자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다 보니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금 파워포인트와 엑셀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지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가능하겠지요?

올해 세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교정기관 야구대회에서 전통의 경상도지역 강호들을 제치고 꼭 본선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둘째 태권도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3연패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뛰지만 마루타가 되어 동료들을 힘껏 도와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데 드론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대비,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교도 이승욱



교사 전병규



간호서기 하동철

제가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매우 깊이가 있는 학문입니다. 올해 박사학위를 시작하는데 수형자들에게 특성화된 심리검사나 치료적 개입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박사 과정이지만 업무와 함께 끝까지 잘 해내고 싶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CNC작업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또 민간기업과 MOU를 맺어서 기술전수는 물론 수형자들의 취업연계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승진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선은 잘 적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새신랑이 되는데 이 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여러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더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를 찾는 시작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의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는지 더 멀리 오를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임상아의 '뮤지컬' 가사다. 과연 우리는 바쁜 일상 속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시간을 갖자.



## 자존감 지키는 법

자존감이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해 주관적으로 내린 판단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흠치는 자존감 도둑이 있다. 이들은 단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는 자존감 도둑의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당신이 지난번 개보다 예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처럼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비약, 어떠한 이유 때문 인지를 묻는 “왜?” 등의 비난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흠쳐간다고 말하며,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그러게요.”로 답하라고 조언했다. 윤 박사는 그들을 감싸 안으란 얘기는 아니라고 덧붙이며, 나의 감정을 위해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무력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남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러니?”, “너 이리다 나중에 큰일 난다”, “왜 사니 왜 살아” 등 공격적인 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허무함을 선사하여 더 반박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귀띔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후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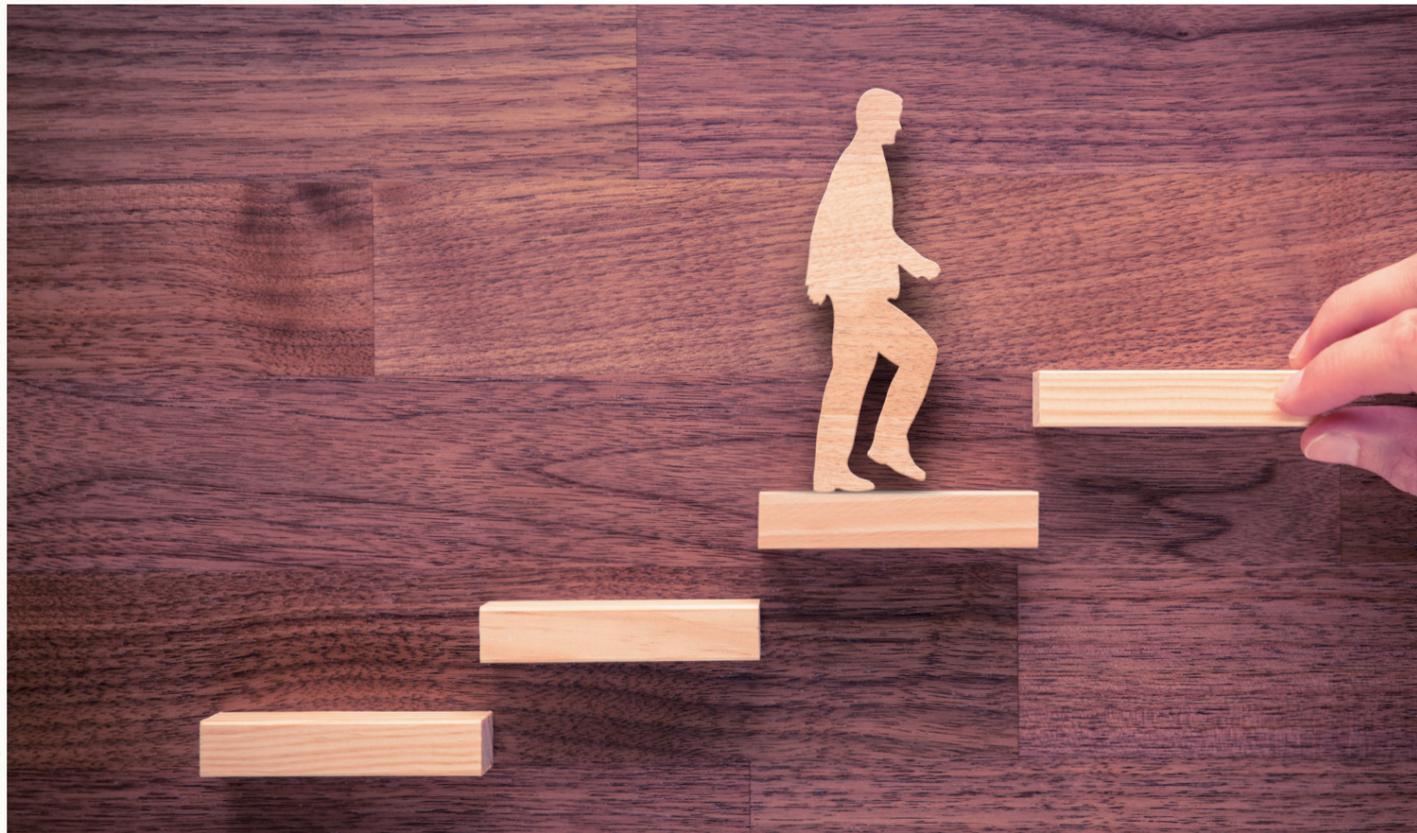
# Self-Regard

자존감은 지키고  
자신감은 높일 때  
온전히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유 있는 자신감, 자기계발

해마다 많은 자기계발 도서가 쏟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야근 때문에 힘들어서, 돈 드는 게 부담스러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버겁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계발은 거창하지 않다. 자기계발의 사전적 의미는 '잠재된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움'을 뜻한다. 작게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는 것부터 넓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비용이 부담인 근로자들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카드는 60%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된다. 매번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자기계발도 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 선택이 가능한 원데이 클래스가 그 해결책이다. 스포츠, 요리, 문화, 지식, 여행 등 강의의 폭이 넓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 한 세션 단위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자.

참고 :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 강연(타인으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인류 최대의 축제, 올림픽. 이 커다란 축제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의 수고로움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보탠 또 하나의 손길. 바로 교정공무원들이다. 평균 영하 8도를 오르내리는 평창의 차가운 2월을 그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의 2월로 탈바꿈시킨 그들을 만나기 위해 '교정은 사랑을 신고'팀이 길을 나섰다.



## 평창올림픽 성공을 향해 가즈아~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전격 방문

나라를 위해 고된 업무를 자처하다

꿈을 향한 세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그 위대한 서막을 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을 향한 온 국민의 염원이 무르익은 2월 중순,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이 평창을 찾았다. 바로 이곳 평창에 50여 명의 교정공무원들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전국 290여 개 기관에서 약 7,600여 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파견(2018년 1월 15일 기준)된 이번 올림픽에서 이들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기에 녹록지 않은 통관지원과 기상시스템 관리는 물론 예산과 회계 등의 전문 업무를 맡고 있다. 평창에 파견된 교정공무원들은 특히 통관지원과 하수처리장 지원 등의 민감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교정은 행복을 신고'는 살이 에일듯한 영하의 기온 속에서 온갖 칼바람을 맞아가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피자 10판과 치킨 20마리를 부려놓은 식탁은 군침을 부르는 품미 가득한 향기를 풍기며 교정공무원들을 환영했다.

워머처럼, 오늘은 따뜻한 하루

오늘 모인 인원은 약 15명 정도. 매일의 뻘뻘한 일정 속에서 교대 시각과 맞물려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이벤트는 여느 때보다 특별했다. 서로 서로 잘 알고 있는 지역교도소와는 달리, 이곳 평창에 모인 이들은 전국의 서로 다른 근무지에서 자원한 교정공무원들이었기에, 그야말로 서로 생면부지의 상황이었기 때문.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내 올림픽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왁자지껄 즐거운 대화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으니.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보셨죠?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넘어졌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다니... 금메달도 기대돼요.” (실제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선수들은 지난 2월 20일 치러진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바삭바삭 치킨과 쫄득쫄득 피자를 함께 먹으며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야말로 꿀맛. 교정기획과 윤종용 교위는 여기에 흥을 돋

우고자 미리 마련한 질문 뽑기 게임을 제안했다. 작은 상자를 채운 10여 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질문을 뽑은 이는 오강혁 교도. “평창에 와서 가장 좋은 점ियो? 당연히 올림픽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외국 선수들 구경도 하고요. 정말 오길 잘한 거 같아요.” 그야말로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낸 대답.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의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공감은 “처음 평창 파견직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느낌은?”이란 질문에서 나왔다. 권순범 교위는 “망설임 없이 평창 근무를 지원했다”며, “이곳에도 교정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공감은 바로 살인적인 추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장재호 교사는 “너무 추워요. 손도 시렵고, 발도 너무 시렵고.”라며 모두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평창’하면 ‘올림픽’ 다음으로 ‘추위’를 기억할 듯하다고. 그래도 모두 자발적으로 평창행 티켓을 끊었다는 사실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은 이유

오늘의 이벤트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 바로 근무지가 다른 인근 지역에서 수고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있는 곳까지 방문했기 때문. 호명교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기영 교도와 문화연 교도, 그리고 진부에서 혼자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박주리 교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적은 바로 ‘추위’였으니. 그 어떤 것보다 벅뽀뽀가 반가운 이유다.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패럴림픽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이에요. 패럴림픽도 기대됩니다.” 자신에 찬 남기영 교도의 청명한 목소리는 평창의 맑은 하늘과 닮아 있었다.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응원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려에 힘입어 패럴림픽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미소가 아름다운 박주리 교도 역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를 기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훗날 자녀들에게 들려줄 멋진 경험...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모인 교정공무원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단 하나. 바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정공무원들의 나라를 향한 애뜻한 마음들이 평창올림픽의 개막식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치의 후회도 없었다. 올림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인데다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손꼽았다. 이현재 교도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어느새 봄날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다. 평창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김세훈 교도는 “평창은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 너무 멋져요. 이국적인 느낌까지... 북유럽의 어느 아름다운 도시에 온 느낌이에요. 한 번쯤 오시길 추천해 드려요.”라며 평창을 홍보하기도 했다. 올림픽 때문에 온 평창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흠뻑 정이 들어버린 게다.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교정공무원들을 위해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야외에서도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벅뽀뽀. 선물을 받은 교정공무원들은 “와아~”라며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의 진심어린 응원이 가득 담긴 선물을 직접 목에 둘러보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향해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쳤다.

## 평창의 기운을 모아

# 새해에도 으리-차-차

평창에서의 바쁜 일과 중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4명의 교정공무원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동계올림픽과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보람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의 특별한 사연과 함께 사진의 자세를 보며 동계올림픽 종목을 맞춰보는 깨알 재미도 느껴보자.



### 교도 노태황

눈발을 휘날리며 속도를 겨루고 빙상을 가르며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동계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스키점프입니다. 네, 영화 <국가대표>에 나온 그 종목 맞아요.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찾아보곤 하는데요.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그 한 번의 점프를 위해 수만 번의 노력을 기울인 걸 생각하면 웅글하죠.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한다고 하니 지금 다들 너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시네요. 하하.



### 교도 채수경

<교정>의 3월호 테마가 '시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죠. 평창올림픽에 온 것도 새로운 시도이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결혼했거든요. 신혼인데 이렇게 평창에 와 있네요. 그래도 아내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함께 교정본부 여러분도 활기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아요!



### 교도 이현재

평창에 와서 좋은 점은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타 기관에서 온 동료들과 새로운 인연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즐거움으로 꼽고 싶어요. 함께 고생하면서 정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모든 분이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많이 위험하고 예민한 일인데, 다들 무척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교사 박장선

방금 질문 뽀기 게임에서 '나에게 평창 올림픽은 00이다'라는 질문을 뽑았어요. 저는 그 빈칸에 '희망'이란 말을 넣고 싶습니다. 교정근무원으로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이 평창올림픽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개회식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을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하나의 팀이 되어 뛰고, 쇼트트랙에서 남북 선수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등을 보니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창올림픽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우리 가족 동물 먹이주기 체험

춘천교도소 교도 임상목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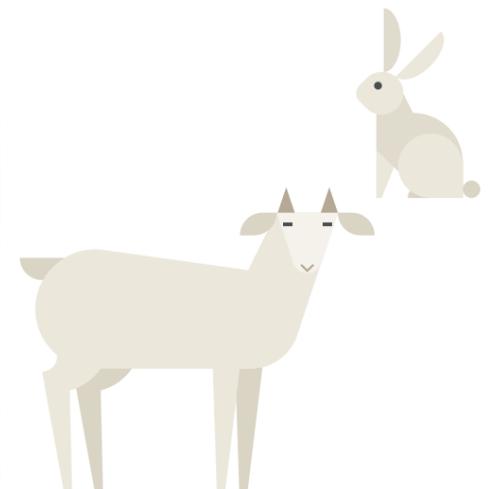


따뜻한 봄기운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 임상목 교도(38)는 아내 송민정(39) 씨와 첫째 딸 가은이(8), 둘째 딸 주은이(6)와 함께 새 농장으로 따뜻한 봄 나들이를 다녀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은이와 동물을 사랑하는 주은이를 위한 선택이다.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한 가족의 따뜻한 하루를 만나보자.



## 동심 속으로 향하는 가족

평소 가족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는 임상목 교도는 늘 고마운 아내와 예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교정>에 응모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당침이 안됐나보다 생각될 즈음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고. 임상목 교도는 아내와 아이들이 당침 소식을 듣고 좋아할지 반신반의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아내가 책자에 사진이 실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새와 동물을 무서워하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내는 남편의 뜻을 잘 이해해주었고 아이들도 춘천아가새농장에 가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했단다.



## 동물과의 교감으로 시작하다

네 식구가 춘천아가새농장 입구에 들어서자 친절하신 사장님과 강아지 두 마리가 가족을 반겼다. 그러나 동물들이 보이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첫째 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리가 잘 된 농장이지만 많은 동물에게서 나는 냄새로 가은이가 주춤했다. 다행히 첫 번째 체험은 가은이가 좋아하는 토끼 먹이 주기였던 덕분에 곧바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배춧잎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입장하자 토끼, 염소, 기니피그 등 다양한 동물이 가족을 반겼다. “와, 토끼다!” 기쁘게 뛰어다니는 둘째 주은이와 달리 첫째 가은이는 좋아하는 토끼를 앞에 두고도 조심스러웠다. 엄마와 함께 토끼를 바라보던 첫째 가은이는 이내 토끼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금세 먹이 주기에 동참했다. 자매는 서로 “엄마 이거 봐!”, “아빠 여기도!” 감탄사를 지르며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타조들이 나타났다. 순하지만 몸집이 커 위협적이라는 타조는 우리 밖에서 먹이를 줘야 했다. 임상목 교도는 키가 닿지 않는 주은이를 안아올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새와 친해질 수 있도록 새를 어깨와 팔에 올리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내 송민정 씨는 “남편은 평소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라며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타조는 주은이가 주는 먹이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잘 먹다가 주은이의 손을 살짝 꼬았다. 다행히 타조는 이빨이 없고 부리도 뾰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놀라서 울음이 나올 법도 한데 주은이는, “엄마, 타조가 물었어. 그래도 괜찮아!”라고 씩씩하게 웃었다. 타조 사육장 앞쪽에는 커다란 타조 알과 사진 찍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주은이와 가은이는 자신들의 얼굴 크기 만한 타조 알을 들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전 가은이는 어쩐지 아쉬운지 토끼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먹이를 주었다. 송민정 씨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며 “시간이 나면 동물을 보러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알록달록한 아기 선코뉴어들이 임상목 교도 가족을 반겼다. 모이와 호두, 잣을 들고 들어가자 색색의 새들이 임상목 교도 가족을 향해 물려드는 장관이 펼쳐졌다. 이어서 옆 닭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공작새의 외형에 감탄한 가족은 모이를 주었고 이후 닭장 한쪽에 마련된 ‘청란 즐기 체험장’에 도착했다. 고려 청계 닭과 파란 알이 등지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준비해둔 작은 계란판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2알씩 달걀을 넣었다. 송민정 씨가 사장님에게 “달걀이 부화가 가능한가요?”하고 묻자 사장님은 “유정란이니 따뜻하게 품어주면 태어날

거예요”라고 답변해주었다. 닭장 맞은편에는 재롱이 많은 새들이 임상목 교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코뉴어들은 임상목 교도 가족 팔과 머리에 앉아 재롱을 부렸고 앵무새들은 신기하게도 “안녕!”, “안녕하세요”, “헬로”라고 발음하며 가족을 반겼다. 임상목 교도 부부도 앵무새를 보며 따라 하는 등 동심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이어서 큰 새들을 팔에 올리고 교감을 시도했다. 엄마 송민정 씨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연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웃음 지었다.

### 가족과 행복을 나누리라는 다짐

임상목 교도 부부는 “생각보다 더 좋은 추억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주은이만 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첫째 가은이가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행복했다”며 “처음 해본 체험 학습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내 송민정 씨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다”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목 교도는 ‘아빠! 어디가?’ 코너에 응모할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직장생활을 하며 정서적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가족과 추억을 쌓으며 내 가족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좋은 다리 역할을 해주시니, 많은 분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IP

### 춘천아가새농장

선코뉴어, 앵무새, 청계 닭 등 다양한 조류, 토끼, 염소 등 다양한 동물, 꽃, 넝쿨 등의 식물을 만나보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성문길 5  
홈페이지 : <http://010-6751-5174.okqr.co.kr/>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 봄비와 연극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김은희 · 정여경 · 윤혜영

서울남부구치소 민원과 접수팀에는 삼총사가 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서로를 위하여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이 삼인방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왔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이들은 이제 새로운 부서로 각자 자리를 옮겨야 한다. 같은 구치소 안에 있겠지만 왠지 허전하고 아쉽지만 한 세 사람은 '어느 멋진 날'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구치소의 민원과 접수팀은 민원인과 대하는 최전선이라고 불린다. 그야말로 감정노동이기에 업무 강도가 상당히 '쎈' 편이다. 하지만 이 힘든 현장에서도 늘 밝게 웃으며 일한 삼총사가 있었으니, 김은희, 정여경, 윤혜영 교위가 그 주인공이다.

"2011년에 처음 만났어요. 민원과에서 1년 동안 함께 일하며 더 친해졌고요. 자리도 나란히 앉아 있거든요. 가끔 일이 힘들어도 셋이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하면 어느새 마음이 즐거워지곤 해요."

윤혜영 교위가 아득한 눈으로 첫 만남을 회상했다. 어쩌면 녹록지 않은 업무기에 동료의 위로가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터. 평범한 인연에서 굳건한 우정으로 세 사람의 만남이 영글어 가는 사이, 결국 헤어질 시간이 오고야 말았다.

아쉬운 마음에 정여경 교위는 두 사람에게는 비밀로 한 채 '어느 멋진 날'을 신청했다. 그러곤 어느 날 불쑥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두 사람을 불러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말 못 했다'고 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준 거니까요."

김은희 교위가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사이, 오늘의 이벤트가 시작됐다. 오늘의 '어느 멋진 날'은 바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팽 부장으로 열연한 배우 정웅인 씨가 등장하는 '리처드 3세' 관람이었기 때문.

연극의 막이 오르고, 세 사람은 숨죽인 채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했다. 인터뷰도 없이 2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강렬한 서사시. 막이 내리자 리처드 3세에 빙의되어 광기 어린 연기를 펼친 황정민과 리처드의 형이자 요크 가의 황제인 에드워드 4세 역을 멋지게 소화한 정웅인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봤네요. '슬뺩'의 팽요정은 어디 있는 거죠?"

모두 배우 정웅인의 또 다른 매력에 감탄을 쏟아냈다. 연극이 끝나고 잠시 정웅인 씨를 만나는 행운도 누릴 수 있었다. 교위 세 사람이 연극을 보러 와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정웅인 씨는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마침 이날은 명예교도관 위촉식을 받은 날이라 세 교위가 더욱 반가웠을 터. 연극 티켓에 정웅인 씨의 사인을 받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후 예술의 전당을 나서는 세 사람의 얼굴은 만족의 미소로 가득 찼다. 그들의 우정처럼 특별한 하루는 그렇게 새로운 내일의 우정을 기약하며 축축이 저물어갔다.



"추운 겨울을 끝내는 봄비처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 정여경 교위

우리 셋이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시절을 뒤로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신청한 이벤트였어요. 달력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연극에서 팽 부장님은 '슬뺩' 때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었지만, 같은 엄격하면서도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의감 넘치는 모습은 그대로였던 거 같아서 참 좋았어요. 이제 우리 다른 배치로 각자 갈 길을 가지만, 오늘 함께 까르르 웃던 시간이 앞으로의 날들에 힘이 되어줄 거라 믿어요. 민원과 접수팀 팀워크가 어디 가겠어요?



왼쪽부터 \_ 교위 김은희 윤혜영 정여경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의 여러분께 문화관람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ed2015@naver.com



## 아이와 함께하는 홈가드닝 🌱🌱🌱

봄철이 되면 심심치 않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한다. 아이와 근교에 나가 공원 산책이라도 가고 싶지만, 문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집에 머물면서 가족과 봄을 만끽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집 안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가꾸고, 집 안에 구석구석 싱그러운 식물들을 배치하여 산뜻한 봄을 맞아보자. 식물과의 교감으로 일상에 싱그러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 가족과 함께하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굳이 텃밭을 만들어 키우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 재배한 채소를 가족이 맛있게 먹어준다면 조금의 수고스러움은 오히려 즐거운 취미가 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채소를 심고 수확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이 더욱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이유다. 베란다 텃밭이란 꼭 베란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집 안 햇빛이 드는 빈자리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제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심기 좋은 작물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무순과 같은 새싹 채소는 일주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하다. 기르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다. 넓은 화분에 촉촉한 흙을 깔고 씨앗을 뿌린 뒤 충분한 물을 주면 된다. 흙이나 공간이 없다면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향이 좋은 허브류도 베란다 텃밭에 적합하다. 로즈메리는 특유의 신선한 향기가 뇌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육류, 생선 요리 시 함께 조리하면 잡내를 잡아준다. 푸르른 쌈 채소 역시 베란다 텃밭에 잘 맞는다. 녹색 채소에는 폴산, 루테인, 질산염 등 다양한 영양분이 스트레스, 뇌 손상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플랜테리어에 적합한 식물과 기능



**틸란드시아** 공기 중의 먼지와 수분을 먹고 살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실내 발암물질 '메탄알'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

**호정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하므로 밤공기를 맑게 해준다.

**스투키** 음이온 배출량이 많아 공기 청정기 역할은 물론 전자파 차단 효과가 탁월하다.

**아이비**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

**스파트 필름, 행운목** 습도조절 및 공기정화에 탁월해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한다.

### 플랜테리어 시작하기

집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집 안 구석 구석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이다. 플랜테리어를 통해 집안의 공기정화는 물론, 천연 가습, 유해물질감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처음 플랜테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하고,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초보자를 위하여 공간별로 효과적인 식물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빛이 없고 기온이 서늘한 현관에 어울리는 식물이다. 안과 밖의 온도 차가 큰 만큼 스킨답서스, 아이비와 같이 환경변화에 금방 적응하고 음지에서 잘 자라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 좋다. 현관이 좁다면 작은 치수의 벽걸이 화분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안정감이 필요한 안방에 어울리는 식물이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 산소를 내뿜는 선인장이나 음이온을 발생하는 산세비에리아와 같은 다육 식물이 적합하다.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가벼운 향의 꽃도 좋다. 세 번째, 공부하는 아이 방에는 관리가 쉬우며 알파파를 증가시켜 편안함을 주는 녹색의 식물이나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로즈메리류의 허브가 적절하다. 또, 아이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스투키를 놓도록 하자. 네 번째,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는 거실은 푸르른 녹색 식물이 알맞다. 땀갈 고무나무와 아이비 같은 공기 정화식물이 그 예다. 가습기 효과가 있는 장미 허브, 행운목 등의 화분을 활용하여 거실 면적에 따라 큰 화분과 작은 화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습기가 많고 청결해야 하는 주방과 욕실에는 향이 은은하고 색이 화사한 베고니아 꽃으로 단장한다.



## 오후의 불청객

# 식곤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점심 식사가 끝난 나른한 오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눈가를 무겁게 하는 식곤증이 그 주인공이다. 식곤증이란 음식을 섭취한 후 소화를 시키기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려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이다. 심할 경우 생체리듬이 깨지고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렇다면 식곤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식곤증에 대한 오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은 진한 커피, 아주 진한 커피다. 커피는 내게 온기를 주고 특이하게 힘과 기쁨, 쾌락이 동반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잠이 오면 찾게 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각성효과가 있어 밤을 새워야 할 때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과연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는 우리 건강에 괜찮을까? 그러나 카페인 음료의 각성 효과는 일시적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크다. 국내에서는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마신 고등학생이 전신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다량 섭취 시 카페인중독, 불면증, 신경과민, 현기증,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식곤증과 춘곤증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춘곤증은 긴 겨울 동안 신선대사가 위축되어 있다가 봄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몸이 적응하며 나타나는 생리적 피로감으로, 식곤증과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 식곤증을 물리치는 습관의 변화

식곤증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은 식사량을 80%가량으로 줄이고, 탄수화물을 덜 먹는 것이다. 흰 쌀밥, 면,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른함을 더 오래 느끼게 한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많은 두부, 생선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 바나나와 우유는 트립토판이 많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포도당이 떨어져 뇌가 최적의 활동을 하지 못하

### 식곤증 해소 스트레칭

#### ■ 스트레칭 1

- 1) 양손 각지 긴 상태로 팔을 위로 쪽 늘려준다.
- 2) 15~20초 동안 뻗은 팔을 유지한다.

#### ■ 스트레칭 2

- 1) 오른쪽 다리를 상체에 최대한 붙일 수 있도록 접는다.
- 2)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로 5~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2) 반대쪽도 같게 스트레칭을 해준다.

#### ■ 스트레칭 3

- 1)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어깨를 펴준다.
- 2) 어깨에만 힘을 주고 위로 올려준다.
- 3) 5초가량 유지한 다음 푹 하고 팔을 떨어뜨린다.
- 4) 10회 이상 반복한다.

#### ■ 스트레칭 4

- 1) 허리에 부담이 덜 가도록 허리에 두 손을 얹어준다.
- 2) 허리를 최대한 뒤로 꺾어 숙여준 후 상체의 근육을 풀어준다.
- 3) 허리를 앞으로 숙인 뒤, 바닥에 손을 뻗어 스트레칭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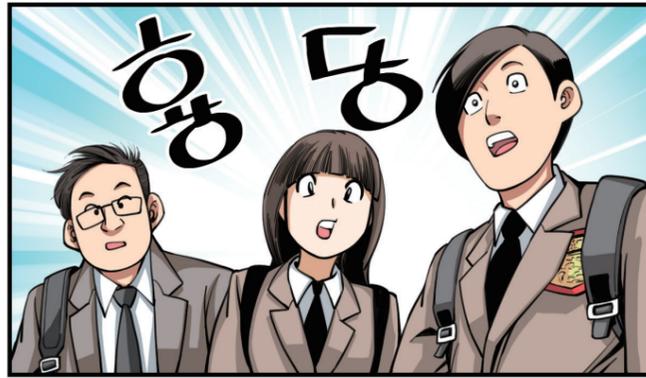
참고 : 박솔의 생물산책 / 국민체육진흥공단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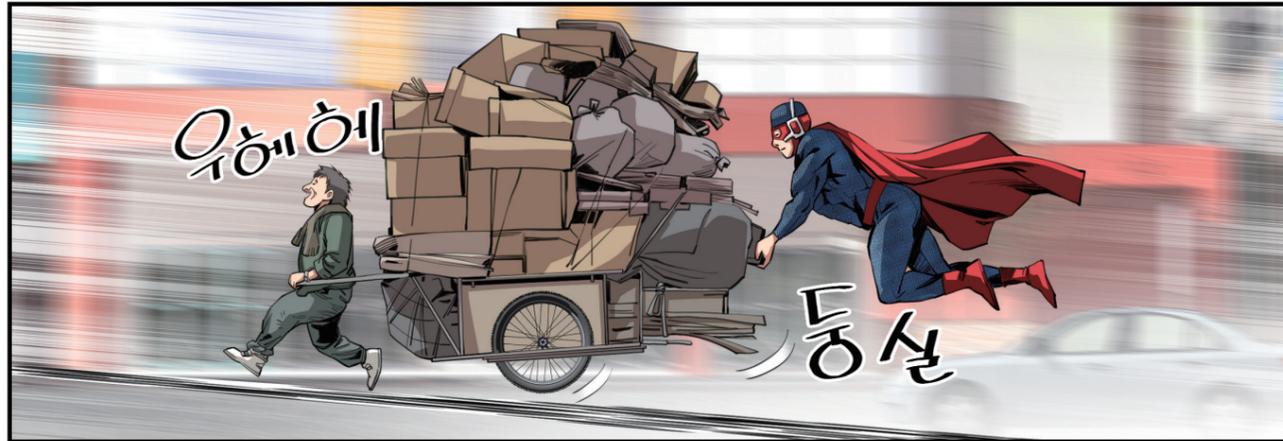
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 부족과 공복감으로 점심에 폭식할 수 있다. 점심 폭식은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바로 식곤증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후 멘톨 성분이 함유된 치약으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치약에 들어 있는 멘톨 성분은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어 졸음을 쫓는다. 네 번째 습관은 식사 후 10~20분 가량 낮잠을 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산책을 통한 식곤증 해결이다. 햇볕을 쬐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식곤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방법은 식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잠을 깨운다.

# 고정민의 활약





으하하하~ 내가 어제 뭘 먹었기에 이리 힘이 나지? 아까까지 무겁던 리어카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어~



우와~ 대박~

유튜브에 올리자~



야~ 법대로 해- 법!

오~ 법 좋지~ 내 법은 주먹인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헉-



다... 당신 똥데?

뭘 도와준다는 거야?

제가 법을 좀 알거든요. 법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서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한쪽은 명예훼손으로, 한쪽은 공갈 협박이 성립되어... 벌금 및 전과 기록으로... 불라불라~ 하여튼 인생이 피곤해 집니다.

뭔가... 우리가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지...?



아... 그런 거였구나-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갔다간 친구 사이는커녕, 인생까지 망칠 뻔 했네-

그러게. 친구사이라고 서로에게 너무 무례했어.



고맙네 교정맨- 덕분에 친구 사이 우정도 지키고,

법을 상식도 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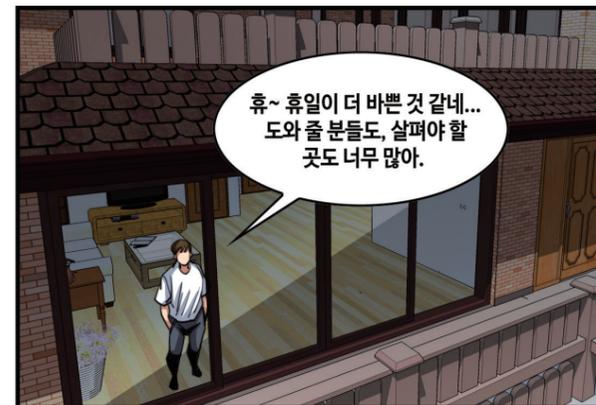
하하- 이제 더 돈독한 우정 지키세요.



전국에서 교정맨이라고 불리는 히어로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선행을 하는지 정체는 무엇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마포와 강원도 횡성의 한 화재 현장에서...



휴~ 휴일이 더 바쁜 것 같네... 도와줄 분들도, 살펴야 할 곳도 너무 많아.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계속 힘내자!

교정맨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 올림픽과 추억의 적금통장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자기만의 추억의 적금통장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작은 추억이든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큰 추억이든, 추억의 입금 횟수가 많아지고 그 누적 금액이 커지면 생은 아름답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 한 번에 입금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4월 말 저는 법무부 직원 게시판에서 공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니 공직자들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티켓 구입에 동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관람으로 동계 스포츠의 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설렘을 가지고 바로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입장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좌석 가격이 55

만 원이고 아이스하키는 15만 원,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25만 원이더군요. 스키점프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역시 적지 않은 12만 원. 잠시 고민에 잠겨 봅니다. 보고 싶었던 경기를 모두 관람한다면 수백만 원이 족히 들기 때문이지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향후 30여 년은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다시 개최되기 어렵기에 이번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이고, 입직 후 지금껏 생업과 일상에 지쳐 별다른 추억의 입금을 못했다는 것을 알자 고민은 금세 없어지고 역시 돈보다는 추억 만들기가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추억의 입금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올림픽의 벽찬 감동을 누군가와 같이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는 옛 직장 동료의 제자(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튀니지 대학생)를 한국으로 초대하여 스키점프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을 같이 관람하였고 조카와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및 피겨 스케이팅을 보았습니다. 평생 눈을 본 적이 없고 겨울을 느낄 수 없었던 튀니지 학생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쏟기까지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알리나 자기토타 선수가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모습과 포스트 김연아라고 불리는 최다빈 선수의 아름다운 연기를 지켜본 조카는 다음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도 꼭 가야겠다는 벌써 4년 후가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불과 수초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맨 몸으로 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행인 스키 점프,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만드는 모굴 선수들의 공중 묘기, 인간이 아니라 요정들이 펼치는 것 같은 피겨 선수들의 연기, 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모든 경기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해주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 이제는 한국이 제2의 조국이라는 캐나다인 영어강사는 아이스하키 경기 내내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을 외치고 직접 단채용원을 이끌어 옆에 있던 우리를 숙연케 했습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몸으로 올림픽을 보러 온 캐나다 노(老)부부와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에 의존한 채 수천 킬로를 날아온 핀란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 올림픽은 무엇이며 올림픽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냐고? 그들의 답은 같았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을 넘어 세계인과 통한다는 즐거움이 있고 무엇보다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긍정 에너지가 그 어느 축제보다 큼니다. 이 행복감으로 수십 년을 견뎌낼 수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비슷하게 답할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는 하나이며 열정과 감동은 통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마지막 날,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못하는 러시아 아주머니가 시민들에게 김포행 버스 타는 곳을 물어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앞서 도움을 부탁받은 이들이 다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가버립니다. 결국 제게도 도움을 청해왔고 서울역 앞



지리를 모르지만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고 서울역 치안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버스를 타게 해주었습니다. 임박한 KTX 탑승 시간 때문에 평상시였다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뭘 못하면 어때? 까짓 거 다음 열차 타면 되지 뭐.’라는 편안한 마음이 가슴 속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의 힘이겠지요.

돈과 비할 수도 없고 돈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추억이 제 적금통장에 입금되었기에 앞으로 그 어떤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과 슬픔의 출금이 있어도 능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이번에 받은 무한 긍정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고 밝아지는 데 일조하고 봉사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

법집행과 수용자 관리·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은 근무강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 1만 6천 교도관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모두의 적금통장에 추억과 행복의 입금이 많이 되는 2018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배우 정웅인, 정경호  
명예교도관 위촉식

*Honorary Appointment*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두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가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됐다. 드라마에서 교도관 역할을 맡아 열연한 이들은 실제로도 명예교도관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게 됐다. 2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현장을 찾아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받은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를 만났다.

교정행정 관심 이끌어낸 두 주인공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지난 1월 인기리에 종영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버린 스타 야구선수 제혁을 필두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앙상블이 인기를 얻은 요인이었다. 여기에 교도관의 애환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 교도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효했다. 그동안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용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됐을 뿐, 교도관들의 뒷모습은 잘 다뤄지지 않았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용자들이 불일을 보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까지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교도관들의 민낯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며 드라마의 결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가 있다. 이들은 각각 투박하지만 인간적인 교도관 '팽세운'과 엘리트 교도관 '이준호'를 맡아 드라마의 성공을 함께 이끌었다. 극 중에서 정웅인은 수용자들에게 욕을 서슴지 않으며 거친 모습을 보이다가도 진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는 팽 부장을 연기했다. 정경호



는 원칙을 앞세우면서도 타인을 챙길 줄 아는 교도관 이준호 역으로 등장해 드라마를 빛냈다.

두 배우의 호연이 없었다면 교도관이라는 인물이 깊이 있게 그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정웅인과 정경호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초대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됐다. 법무부가 명예교도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위촉식 현장은 더욱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배우 정경호도 “좋은 드라마에 참여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정웅인 선배와 함께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교도관 여러분께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극 중에서 직급이 ‘교사(부장·8급)’였지만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되면서 드라마 속 역할보다 1계급 높은 ‘교위(주임·7급)’로 특별승진하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은 진정성 있게 교도관 역할을 연기한 두 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두 배우를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정행정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정웅인과 정경호는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 활동에 나서며 국민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예교도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명예교도관으로서 뜻깊은 홍보활동 다짐

법무부 직원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받게 된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는 감격스러운 얼굴로 소감을 전했다. 먼저 단상 위에 오른 정웅인은 “시청자들에게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명예교도관으로 위촉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교도관분들이 팽 부장처럼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교도관들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Mini Interview

### 배우 정웅인 & 정경호

### Q. 드라마를 통해 ‘교도관’에 대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 배우 정웅인

과거 출연했던 영화에서는 교도소 소장 역을 맡았지만 직접 수용자와 과 부딪히는 장면들은 많지 않았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수용자와 많은 것을 교감하게 됐는데 ‘교도관분들이 정말 많은 애환을 겪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그동안은 교도관이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을 교화하고 상대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교도관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고, 드라마를 통해 그분들께 힘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다.

#### 배우 정경호

교도관 역할은 처음이었다. 지인들 중에서도 교도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 교도관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꼈다. 그리고 교도관이 ‘교화’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그렇게 어두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드라마 덕분에 교도관이라는 좋은 직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뿌듯하다.

# 회복적 사법 관점의 소년수형자 교정처우 (下)



## Ⅲ.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이제 우리나라도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즉 '회복적 교정'의 적용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 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 중에도 회복적 사법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특히 최종 판결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형사절차상 가질 수 있는 감형 등 실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죄와 보상, 회복의 과정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회복적 사법이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의 최후 단계인 교정에서 그 가치가 실현되고 범죄문제가 해결되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 1. 재사회화 이념, 교화개선모델과의 관계

오늘날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활동은 재사회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화개선모델에 근간을 두고 심리치료, 대인관계, 인문학, 직업재활, 사회복지, 가족관계 등에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개선모델, 나아가 재사회화 이념까지 실패한 것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로버트 마틴슨(Robert Martinson)이 1974년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에서 재범률에 대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Nothing Works'라는 표현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다른 비판은 자유가 박탈된 교도소에서 자유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불가능하다는 주장

이다. 이러한 상황을 **교도소화(Prisonization)**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한 Clemmer는 “교도소화는 가치·기준·행동양식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인데 수형자의 성격을 붕괴시켜서 그들의 범죄성을 악화시키고 범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며, 출소 후의 사회적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차이에 따라 교도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보안 위주의 교정시설에 비해 **처우와 교화 중심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태도가 보다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전히 교화개선모델은 오늘날 포기할 수 없는 모델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사회화 이념과 개선모델이라는 오늘날 대세적 교정패러다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보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학자들과 실천가들은 범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해 교정이 제대로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형자는 형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가지고 진정한 참회와 손해 배상 등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갈 때 재사회화의 길을 열어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혹은 석방 후 피해자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형자가 전문 조정자(Mediator)를 통해 피해자를 만날 충분한 준비가 되고 그 필요성과 동의를 있으면 **피해자-가해자 대화 프로그램(Victim-Offender Dialog Programmes)**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대면 없이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유형으로 **피해자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Victim Awareness and Empathy Programmes)**을 들 수 있다. 실제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수형자와 무관한 피해자이지만 동종 범행 피해자가 참석하여 피해 경험과 그 이후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결국 자신의 범죄와 피해자를 솔직히 성찰하도록 이끈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ycamore Tree<sup>1)</sup>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피해자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결국 회복적 교정은 기존의 교화개선모델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재사회화 이념을 더욱 완성해 나아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지만 상호 보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회복적 공간 프로젝트(Restorative Prison Space Project)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은 단편적 단기적 회복적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이념에 있어 회복적 교정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수형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교도소 내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대화방식은 물론 수용관리와 수용생활 전반을 회복적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회복적 교도소(Restorative Prison) 프로젝트**를 이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또한 회복적 활동뿐만 아니라 동료 수형자와의 관계, 때로는 갈등 해결, 교도소 내에서의 크고 작은 범죄·비행에 대한 대응방식 나아가 직원과의 관계에도 회복적 가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충분한 회복적인 것이 되려면 회복적 활동에서 나아가 교도소 자체가 회복적이어야 한다. 이는 곧 목표와 가치,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시설,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회복적 변화는 교도소의 이미지나 경험을 변화하고자 한다. 교도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Prison'이 아니게 한다. 교도소 내의 회복적 사법 활동은 교도소의 역할과 근간을 변화 이동하는(Transforming) 것과 심지어 교도소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려는 것을 포함한다.<sup>2)</sup>

1) 찰스 콜슨이 설립한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PF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키 작은 세리장(세관)이 삭게오(Zacchaeus)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Sycamore Tree)에 올라갔는데 그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배상을 실천한 이야기에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2) Toews Barb,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for People in Prison, PA: Good Books, 2006.

‘회복적 공간(Restrative Space)’이란 회복적 기초 위에 세워진 공간을 의미한다. 회복적 공간의 이미지는 ‘해롭지 않는 거실(Do-No-Harm Room)’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실은 수형자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수형자들 그룹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거실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그들은 양서와 전화기, 안락한 의자, 창문과 좋은 전망, 음악, 어항, 화분을 말한다. 그들의 거실은 존중, 관계, 안전, 평안, 소통, 희망, 삶이라는 회복적 가치를 상징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보듯이 사람은 환경적 존재이며 환경의 변화는 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환경은 곧 회복적 사법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 IV. 소년수형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소년사법은 응보적 사법 관점으로부터 회복적 사법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다. UN 범죄방지회의와 벨기에에서 개최된 루벵선언은 소년범죄자에게 회복적 사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난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책임이 자유박탈이라는 구금과 타율적 훈육에 그치는 응보적 사법을 극복하여 소년 스스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피해자와 이웃에 고통을 주었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참회함과 동시에 피해를 배상하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소년의 상응한 바람직한 책임이며 동시에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의 자발적 책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율성과 양방향적 책임의 정신이 지향하는 목표가 회복적 정의이며 실천과정이 회복적 사법이다. 특히 소년들은 아직 양육과정에 있으며 변화 가능성이 큰 성장기에 있기에 그들의 질풍노도와 같은 외형적 태도는 왜곡된 양육환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반응이고 성장통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회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캐나다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 형을 언도하되 소년교도소(Youth Center)에 수용 처우하고 그 외에는 소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비사법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로서 자원봉사부과, 피해자에 금전 배상, 또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하고 있다.

##### 1. 피해자 인식 및 공감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교정단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던 피해자 인식과 공감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안양교도소는 2001년 1월 20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2시간 반 동안 종교교육실에서 총 7회에 걸쳐 **Sycamore Tre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해자의 경우 안양교도소의 추천으로 소년수형자 7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가해자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다른 범죄의 피해자 5명이 참가하였다.

회기	주제	목표
1	프로그램 이해	프로그램 과정, 필요성 이해, 행동원칙 이해와 동의
2	범죄와 피해 인식	회복적 관점에서 범죄와 피해 이해(피해자 참여)
3	책임지기	범죄를 책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탐구하기
4	고백과 반성	반성과 고백, 용서의 의미, 중요성 이해하기
5	배상과 화해	손해배상 이해하기, 화해 가능성 탐구
6	손해배상 실행	상징적 손해배상 참여, 편지와 서약서 작성, 피해자 느낌 알아보기
7	격려하기	참가자들이 범죄와 치유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점검하고 격려하기

공통적으로 매주 시작 시간에는 집단 성원 내에 편안한 마음과 신뢰감을 갖도록 돕고 지난주 모임 내용을 복습하였으며, 마무리 시간에는 집단 성원들이 배운 점을 이해하여 모임 목표를 강화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식변화의 범주는 범죄(자)에 대한 태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 과거 행동(피해자로서 경험)에 대한 느낌, 범죄(피해) 후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 피해자가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재범에 대한 생각, 행동변화에 대한 기대 등이다. 대체로 프로젝트 첫 시행의 결과는 진행팀이 주도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몇 명은 피해자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독일은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회복(Täter-Opfer Ausglei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정시설에서 맞는 첫 3달 안에 ‘**피해자 초점 프로그램(Focus on Victims Programme)**’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을 강조하고 주위 사람 중 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을 떠올려 보게 하며 또한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도록 하여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악영향의 세세한 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화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 2. 갈등해결 프로그램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다. 특히 구금으로 인해 일면식도 없는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다. 특히 달리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동거한다면 크고 작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갈등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바라보는 갈등전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관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로 교육적 인식과 지원이 필요하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와 교육환경으로 인해, 대화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익숙치 못한 편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예방적 차원에서는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사후적 차원에서는 문제해결 대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뉴욕주 아티카(Attica) 교도소는 유명한 폭동사건이 있던 후 수형자의 요청으로 퀘이커교도들이 만든 **폭력 대안 프로젝트(AVP, Alternatives to Violence Project)**는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교육은 폭력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수형자 스스로가 인식하게 도움을 주고,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화기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 피해 예방 등 회복적 가치들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예방프로그램으로 **비폭력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는 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 박사가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시킨 모델

이다. 비폭력대화 모델은 상호작용에 대한 독특한 방식으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등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초를 둔 능동적인 듣기 기술을 제공한다. 비폭력대화는 욕구(Needs)를 읽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신뢰관계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커뮤니티, 가해자의 욕구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장치로서 특히 소년수형자에게 교육되어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조정 해결자로서 심성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소년교정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사 징벌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 교도소 내 중대한 형사 범죄가 아닌 사례 중 범죄의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대화모임을 통해 조정활동을 선행토록 한 후 징벌위원회 회부를 하는 방안이다. 훈련된 조정자가 필요하며 관계된 직원, 동료 수용자가 함께 자리할 수도 있다. 모임에 앞서 조정자와 양 당사자간의 예비접촉에서 대화모임의 목적과 과정, 대화를 나누면서 존중과 법칙을 알려주어 준비토록 한다. 모임에서는 '왜 그랬냐?'고 먼저 묻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가지고 상호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진상을 조사해보면 서로의 갈등에는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잘못하기보다는 상호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는 복잡한 상황이 허다하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고 잘못을 깨닫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는 서약서, 합의서를 작성한다. 대화모임 종결보고서가 작성되어 조사계에 제출되면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유예 등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며, 향후 생활지도계의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유가 이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 징벌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캐나다 유콘 소년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가족들이 대화모임과 징벌위원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화상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 3. 회복적 공간 프로젝트

서구의 소년교정시설 절반 이상이 생활동, 교육동, 식당동, 사무동 등을 독립된 건물로 분산 배치한 **캠퍼스형**이다. 나머지 소년교정시설은 건물 내에 배치한 일체형과 각 기능동들을 주 복도로 연결한 **진주형**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도 등에서 생활실로의 접근방식에 따른 유니트 형태를 시설은 대부분 **홀형**<sup>3)</sup>으로 조성하여 소년수형자들의 사회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생활실은 개인실이 원칙이며 공동 거실(리빙룸)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간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토록 배려하고 있다. 생활실 내에 개인용 책상과 진열대, TV를 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과 설비 가운데 수용생활하고 있는 어느 소년수형자의 가상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는데 수용생활 처우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아침에 기상하면 소년수형자들은 자신의 신분카드를 가지고 보안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구역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 기숙사동 공동샤워장에서 세면을 마치면 복장은 창바지에 초록색 면티셔츠를 입었지만 일반 사회의 포래들이 입는 스타일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지급받은 아침식사를 가지고 기숙사동 복도에 있는 다용도실 부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방식을 첨가하여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30분의 여유시간이 있어 실내 도서관으로 간다. 그곳에서 어제 작성하지 못한 학예발표회 자료를 도서관 전용 컴퓨터로 자료를 색인해 보았으나 찾got자 하는 보유 자료가 없어 관리직원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검색하여 자료를 찾아 프린트하였다. 자신의 스케줄 시간에 따라 직업훈련장으로 향하였으며

가는 도중 설치된 입식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신에게 온 편지나 영치금 입금 여부, 저녁 프로그램 안내 등 고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오후 운동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매니저로 불리는 스포츠 전문 담당 직원의 지도로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풋살경기에 대한 설명과 안전요령을 교육받은 후 단체경기를 즐겼다. 그리고 옆 헬스실에서 매니저의 지도하에 마무리 운동 후 샤워를 하였다. 직업훈련이 끝나면 기숙사동으로 돌아오지만 새로운 저녁 여가생활이 시작된다. 오는 도중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수용자 카드로 구매하였다. 곧이어 인원점검과 저녁식사 후 음악 동아리 모임과 종교활동을 각각 1시간씩 참여하고 사동 홀에 있는 공동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40분 정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니 벌써 저녁 취침 점검 시간이 되었다. 내 전용 거실에 들어가 최종 인원점검을 받으면 일과를 종료하게 된다. 내 방에는 침대가 있고 작지만 책걸상이 있으며 책상 위에는 독서전용 전등과 책장, 저장된 음악만 들을 수 있는 허가된 MP3와 이어폰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최신 음악을 허가받고 저장한 후 들으며 책을 보니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하다.

그리고 이번 달 스케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였다. 이번 주 토요일은 2개월에 한 번씩 주어지는 교도소 담 내에 설치된 가족편선에서 1박 2일 가족과의 숙박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이 다음 주에 학기가 종료되면서 학예발표회를 하게 되고 짧지만 방학이 시작된다. 그 기간 중 1가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방학 때는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 '유기견 재활돌봄프로그램', '알콜 단주프로그램'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의 멘토인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후 '피해자 공감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은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도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부모님도 초청되어 격려하러 오신다고 들었다. 그날 부모님은 교도소 내 학부모 세미나도 참여하고 담임선생님과 면담도 있다고 한다. 이제 그만 내일을 위해 자야겠다.』

위 내용은 허구(Fiction)가 아니라 서구의 소년교도소 수형자의 일상을 소개한 것이다. 친사회적 시설과 회복적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 공감능력이 교육되고 조성되어 대화와 관계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 V.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 소년수형자 처우는 분류심사를 거쳐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뮤지컬, 비보이, 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특별활동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될 만 하다. 이러한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지원과 노력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더불어 회복적 소년 교정프로그램은 이러한 재사회화 이념을 더욱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는 물론 자신의 가족,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하는 바탕 위에 책임있는 행동을 배우게 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건강한 부끄러움과 용서받음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용서받아본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역설적 교훈이 있다. 어쩌면 소년수형자들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와, 자신의 이야기에 무관심했던 학교 선생님과의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와 어른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기대해 본다.



# 교정학

##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다음 중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거리가 먼 것은 몇 개인가?

- ㉠ 범죄인 인권보호의식의 확대
- ㉡ 형벌의 소극적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 불개입주의와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
- ㉣ 전환제도의 확대
- ㉤ 중간처우제도의 축소와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 범죄의 사후대응대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
- ㉦ 회복주의 패러다임에서 응징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 범죄예방의 유형 중 2차 예방과 3차 예방보다는 1차 예방의 강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은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거리가 먼 지문이다.
- ㉤ 형벌의 적극적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 중간처우제도의 확대와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 범죄의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
- ㉧ 응징적 패러다임에서 일부 범죄자에 대한 회복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추세

정답 ③

### 2. 다음 중 전환제도(Diversion)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시설수용의 한 대안으로, 성인범죄자보다 청소년범죄자에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 ② 낙인 축소에 도움이 된다.
- ③ 형사사법절차상 교정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형사사법망의 확대(Net Widening)라고 비판받기도 하고, 담당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전환제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형사사법단계에서 가능하다. 경찰단계에서의 훈방,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의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Probation), 교정단계에서의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낙인이론적 관점에서는 가석방은 거리가 있다.

정답 ③

### 3. 다음은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형법이 가지는 보충적 성격과 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 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이다.
- ②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비범죄화의 일종이다.
- ③ 과도한 형벌의 확장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특별예방효과와 형벌구성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시키기 위한 형벌의 보충성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 된다.
- ④ 비범죄화 논의대상 범죄에는 비영리적 공연음란죄, 음화판매죄, 혼인빙자간음죄, 단순도박죄, 사상범죄 등이 있다.

과도한 형벌의 확장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일반예방효과와 형벌구성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시키기 위한 형벌의 보충성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 된다. 특별예방을 강조한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③

### 4. 「형법」상 원상회복제도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기소유예의 조건 및 선고·집행유예의 조건으로 활용
- ② 피해자의 재산상의 권리구제 실현
- ③ 배상명령제도
-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피해보상

국가가 행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공적 부조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형사제재의 일환으로 행하는 원상회복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 5. 다음 중 회복주의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 및 해당 지역사회에 보상해야 할 필요성을 갖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 ② 형사사법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이다.
- ③ 비공식적 절차를 통한 범죄자의 책임감 강조와 집단적 갈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④ 범죄는 단순한 법률위반이 아니라 범죄는 인간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이다.

정답 ②

#### 회복적 사법의 기본원칙

- 1. 범죄는 인간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 2. 피해자와 지역사회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 3. 형사사법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 4. 두 번째 고려사항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환경의 개선)이다.
- 5.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6. 범죄자는 회복적 사법을 경험한 결과로 자신감과 이해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 7. 관련자는 상호연계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책임을 공유한다.

#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연금술 GRIT에 주목하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반짝이는 영감이 필요한 때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책이나 문화생활 등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일상은 여유롭지 않다. 이렇듯 바쁜 교정공무원을 위해 월간 <교정>이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월간 <교정>은 3월호부터 단 18분 동안 펼쳐지는 세계 명사들의 강연으로 유명한 TED의 명강의를 엄선해 소개한다.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 Worth Spreading)'를 모토로, 기술과 예술, 감성이 어우러진 멋진 강연의 세계,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가 전하는 영감을 일상으로 초대해보자.



Grit TED 강연 영상

## Grit으로 성공의 비밀을 풀다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이하 'Grit')은 2013년 4월에 진행된 앤젤라 디크워스(Angela Lee Duckworth)의 강연이다. 'Grit'은 꽤 오래전 강의인데도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인기 강의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에는 <GRIT>이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잘 나가는 경영 컨설턴트였던 앤젤라씨는 27세 되던 해, 컨설팅 일을 그만두고 뉴욕시에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아이큐'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좋은 외모, 우수한 육체적 조건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앤젤라씨는 교직을 그만두고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다. 거기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년간의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떤 사관생도가 끝까지 군사 훈련에 남는가
-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철자대회인 SNSB(Scripps National Spelling Bee)에서 누가 우승하는가
- 문제 학교에 배정된 초임교사 중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가

연구 결과, 그 성공의 비결을 바로 'Grit'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Grit에 앤젤라씨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덧붙였다. 그것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이다.

"Grit은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Grit은 지구력입니다. Grit은 해가 뜨나 지나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Grit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앤젤라씨는 TED 강연에서 Grit에 대해 위와 같이 강조한다.



## TED Grit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grit'을 입력한다 → 동영상 중 'Grit :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를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 봄날, 따뜻한 기운을 주는 책들

교정공무원은 많은 이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 그 과정에서 함께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같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봄처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교정공무원을 위한 책을 소개한다.

###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니나 리그스 지음 / 북라이프

서른여덟 살의 나이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살다간 저자의 마지막 여정. 암이 진행된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랑스러운 두 아들과 언제나 정직함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남편, 가족과 지인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 등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이 그려진다.

유방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괴로운 순간마저도 재치 넘치는 유머와 삶에 대한 애정으로 마주한다. 암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닌, 암에도 굴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승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삶, 그 생애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한다.

### 그 길에 내가 먼저 있었다

나태주 지음 / 밥북

나태주 시인은 말한다.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쓴다. 독자들도 그렇다. 독자들은 의외로 쓱~ 하고 쓰인 시를 더 좋아한다. 자연스러운 시, 편안한 시, 자기네들 마음에 와닿는 시를 원하기 때문이다. 시는 여전히 짧고 단순하고 그 표현이 쉬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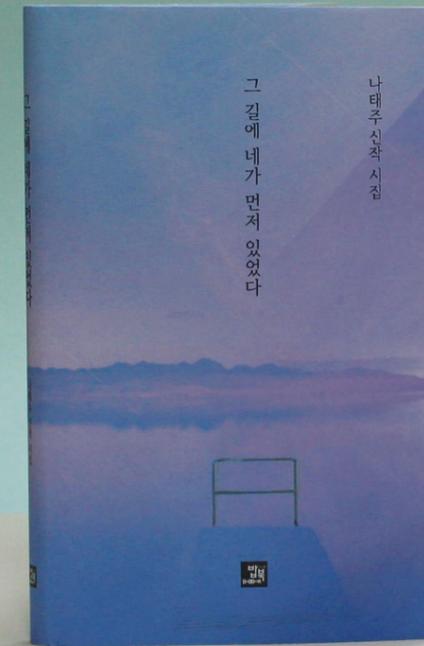
그의 지론처럼 시집은 차분하고 간결한, 읽기 쉬운 언어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 바람이 되었다가, 꽃이 되고, 어느 날은 새가 된 시인이 세상을 향한 러브레터를 써 내려간다. 이 목직한 진심이 담긴 시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에서 관계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공감과 위로를 건네준다. 정성스러운 차 한 잔을 음미한 듯 담백하고 따뜻한 감성이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처럼 감돈다.

### 내가 소홀했던 것들

흔글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완전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저자는 고단한 현실에 치여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담담한 고백과 응원을 전한다. 그리고 그저 웅크리고 버티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머무르는 법에 대해 알려준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타인의 온기에 위안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천천히 스며들어온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넘기면 아쉬웠던 과거와 충만한 현재를 지나 비로소 내일에 대한 위안과 기대를 엿본 듯한 기분이 든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시다. 내일은 멀어요.’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메시지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MARCH 2018 Vol. 502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지난 2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구) 거문고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성 교정본부장, 전국 57개 교정기관장 등 69명이 모여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안근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행복하고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지난 2월 12일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의왕시에 위치한 희망의 집과 명륜보육원을 방문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방문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설아동을 위한 격려금과 생필품, 다과류 등의 격려물품이 전달됐다.

## 근무복 개선 관련 디자인 품평회 개최

지난 2월 13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근무복 개선 관련 디자인 품평회가 개최됐다.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교정본부장과 각 단장 및 과장 등 15명과 의상학과 전공자 6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위원 등 5명이 참여했다. 3월 20일 시제품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4월에서 6월 사이 최종안 확정 및 시범착용을 거쳐 입찰계약 후 제작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삼일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2월 23일 차관회의실에서 삼일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심사 대상은 총 758명으로, 적격 694명, 부적격 62명, 심사보류는 2명으로 분류됐다. 회의 결과에 따라 소년수 3명을 포함한 697명이 2월 28일 가석방 되었다.

## 수형자 직업훈련대학 설립

###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지난 2월 22일 서울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대학 설립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최적 설립 모델 등에 대한 제언 청취 및 검토를 목적으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이창한 교수의 발표로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40여 명이 참여했다.

## 명예교도관 위촉식 개최

지난 2월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두 배우 정웅인과 정경호의 명예교도관 위촉식이 개최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김학성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두 배우에게 위촉장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두 배우는 앞으로 1년간 명예교도관으로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방송통신대학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방송통신대학 학위수여식이 각각 포항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서 개최됐다. 학위취득 인원은 총 22명으로 여주교도소 9명, 포항교도소 12명, 청주여자교도소 1명이며, 학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여주교도소에서 경영학과와 법학과 2명, 포항교도소에서 경영학과 1명으로 총 3명이며, 성적우수상은 여주교도소에서 7명, 포항교도소에서 9명으로 총 16명이 선정되었다. 학위수여식 후에는 가족접견이 실시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신형 무인비행장치(드론) 현장 시연회

지난 2월 27일 안양교도소 직원교육실 및 시범운영 현장에서 드론 운영 개요설명 및 비행 시연을 위한 드론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부 보안과장 등 4명과 (주)드론스쿨 등 관련업체 관계자 4명, 안양교도소와 원주교도소 등 기존 시범기관 드론 운영자와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등 추가 시범예정기관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서지선

#### 정기 이웃사랑 나눔 실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20일 사회복지 시설인 '경기 남부이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하고 위문품 전달 및 영아 돌보기, 정서지원, 저녁식사 보조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에서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다가가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서울구치소 / 교사 김형석

#### 사랑의 헌혈운동

서울구치소는 1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매년 동절기의 경우 평상시보다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적정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생명 나눔 실천과 혈액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사랑나눔행사 실시

안양교도소는 설을 맞이하여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희망나루 지역아동센터', '평강의 집',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사랑의 손잡기 운동 전개

수원구치소는 2월 9일부터 민중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동광원', '새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 독거 노인 등 9개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전달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해 훈훈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제광석

#### 세계호신권법연맹과 협약 체결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28일 정부과천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세계호신권법연맹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은 업무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호신술 교육을 통하여 전문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 직원가족 초청 직장체험 실시

인천구치소는 1월 29일 직원가족 60여 명을 초청하여 직장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직원 자녀를 초청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직업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 자녀들은 이날 신입생 및 수용동을 둘러보며 수용자가 입소하여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오정룡

#### 가족사랑캠프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2월 23일 가족건강 증진을 위해 수용자와 가족 37명이 함께하는 '한내래 우리가족!! 가족사랑캠프'를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참여가족은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사진찍기, 가족케익 만들기 등 행사를 통해 '이해하기', '가족사랑 확인하기', '섬김의 약속'을 함께 다짐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독거노인 위문방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설을 앞두고 마도면, 송산면의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찾아 위문활동을 펼쳤다. 설 명절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에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다.



춘천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설 맞이 사랑 나눔 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교도소 전 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아동복지시설, 양로원, 소외된 이웃 등 3개 시설과 8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고 쌀과 과일,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여주교도소는 2월 13일 연무관 앞 헌혈버스를 이용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경기혈액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날 행사는 겨울방학과 헌혈인구의 감소, 명절 연휴 등으로 혈액 확보가 어려운 동절기를 맞아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진행되었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박진

#### 'Bravo my life, bravo your life'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5일 새해를 맞이해 수용자 화곡연 (Bravo my life, bravo your life) 음악회를 개최했다.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 학생들의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와 다양한 노래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음악을 매개로 수용자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수용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실시되어 의미를 더했다.

###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참

춘천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 등 생명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캠페인에 동참했다. 춘천교도소 청사 앞에서 직원들의 자



강릉교도소

## NEWS

###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 설 맞이 나눔 문화 실천

강릉교도소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등 120만 원의 성금과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25매를 전달했다. 강릉교도소는 1사촌 자매결연 상선연마을과 흥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명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강릉지역 내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성은모자원에는 위문금과 함께 설 연휴기간 자녀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사회복지시설 위문

원주교도소는 2월 14일 설 명절을 맞아 원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안나의 집, 노숙인 쉼터)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위문금품을 마련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 지역사회 온정 나눔 활동

대구지방교정청은 설을 맞아 2월 9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격려금 위탁, 2월 12일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였고, 2월 13일에는 매달 후원금을 지급하는 미소후원 사업의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수용자를 위한 설 맞이 힐링콘서트 개최

대구교도소는 2월 12일 봉사단체인 사랑의 노래 봉사단을 초청하여 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를 위한 설맞이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사랑의 노래봉사단(7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모여 재능기부로 공연을 하고 이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대구지역 결연 소년소녀가정 및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해온 봉사단체로서,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공연을 하게 되었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사랑의 멘토링데이 실시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65세 이상 고령수형자 5명과 장애인 수형자 10명을 대상으로 교정위원과의 '사랑의 멘토링데이(Mentoring Day)'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교정위원들이 수용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 경북북부제교도소 / 교사 김남규

#### 사랑의 손잡기 행사

경북북부제교도소는 2월 12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하였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유대감을 나누는 행사이며, 경북북부제교도소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되고 있다.

### 창원교도소 / 교도 박해빈

#### 창원교도소 소외이웃 위문

창원교도소에서는 2월 12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장애인 및 무연고자 생활시설인 '소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위문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노인 및 결손아동 등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 지원 하는 등 총 8개 기관에 34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교도소는 2월 1일 성산오양병원과 협력병원 진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영월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월 노인전문요양원, 요셉의 집 사회복지시설 2곳을 비롯해 관내 다문화 취약가정, 한부모 가정 총 6곳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 이웃사랑 나눔 문화 활성화 동참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월 8일 설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후원해온 평택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 직원이 모금하여 마련한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로 협약 및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수용자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교정부부 직원 정신건강(마음나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으로 직원들의 직무상 받는 스트레스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설 명절 맞이 이웃돕기

설을 맞이해 포항교도소는 불우 이웃돕기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가정 3곳, 사회복지시설 2곳, 노인회관 등 총 6곳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정리를 하고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더불어 지진피해 직원에게도 성금을 전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어려운 이웃 위문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2월 13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 받은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0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나누미봉사단(진주교도소 전 직원들로 구성)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 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 '설 명절 사랑나눔행사' 실시

대구구치소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곳곳을 방문하여 직원과 교정위원의 정성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아동복지시설인 '대구 SOS어린이마을'과 화원중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3일 사회복지시설 2곳(안동 '평강의 집', 영양 '은혜의 집')과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동장정리를 하는 등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 위문·봉사활동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재원으로 지원되었으며,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가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빵이 전달되었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2월 13일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하였으며, 풍선을 소재의 불우이웃 3가구에 각 10만 원, 노인복지시설인 소망의 집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각 2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 소망의 집 방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14일 실버타운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

위로문 어른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자 실시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은 위문금 전달 및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어른들의 말벗도 되어드렸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 제34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14일 소내 다목적 홀에서 제34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천중앙고등학교장 임규홍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교정협의회장 강희락 및 소년수형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 설 맞이 위문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온정이 모인 위문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어보았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차석호

####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울산구치소는 2월 14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총 135만 원의 위문금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역 내 두현마을 노인회관 방문, 청원 소망원 지원,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천하였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설맞이 소외된 이웃방문

경주교도소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근 마을 노인회관, 저소득 장애인가정 등 4가정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위

문하였다. 경주교도소장은 "이웃들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설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지속적인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야간 소방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야간 및 휴일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야근부의 상황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훈련마다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써, 야근부의 상황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소방장비 사용법, 사용요령 숙달, 환자 후송 등 훈련을 통해 수용자의 생명과 시설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철

#### 이웃사랑 성금 전달

밀양구치소 미르피아 보라미 봉사단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2월 12일에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위탁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하고, 오후에는 관내 3개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1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 8가정을 방문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사랑의 행복나눔 행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상주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행복나눔 행사를 가졌다. '달팽이 봉사단'은 상주교도소 인근 사벌면 소재 희망재활원과 목거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위문품(15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2가정을 찾아 각 가정에 20만 원(총 40만 원)과 선물세트(10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 이달의 모범교도관 등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1월 31일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이달의 모범교도관, 교정사교방지유공 및 2017년 4분기 교도작업 생산왕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전교도소 교위 김병덕 등 11명이 모범교도관으로, 변우민이 교정사교 방지 유공표창을, 천안교도소 교위 김충식 등 2명이 교도작업생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 솔로몬로파크 직무연수 교사 참관

대전교도소는 1월 11일과 18일 및 25일 3차례에 걸쳐 대전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직무연수 교사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전국 각지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 및 시설 등의 참관을 통해 현대적인 교정행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최진영

#### 직원가족 참관 행사

청주교도소는 1월 26일 직원 가족 56명을 초청해 가족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 자녀 및 가족들을 초대하여 근무환경 등을 공개함으로써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가족 간에 화합 및 소통 증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교정홍보 영상 시청, 소장님의 인사말씀, 구내 참관,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로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천안교도소는 2월 1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세 곳을 위문 방문했다. 설 명절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청주여자교도소 이웃사랑 및 나눔실천

청주여자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후원했다. 후원금 등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6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각 과별로 지정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후원·지원함으로써 참된 이웃사랑 및 나눔을 실천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김종욱

#### 설 명절맞이 사랑나눔 실천

공주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주교도소 주변에 있는 불우 이웃을 찾아 위문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 직원이 마련한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설맞이 사랑나눔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불우이웃 가정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주교도소 봉사동호회에서 정성껏 모금한 성금도 전달하는 등 전 직원이 함께한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교정협의회 신년하례 행사 개최

충주구치소에서는 1월 30일, 교정협의회 김연희 회장 등 외부위원 27명과 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행사를 개최했다. 2018년도 교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의 자리는 회의 후 직원의 축하 및 기타연주 등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의 시간을 가졌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새해맞이 직원 단합대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2월 12일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기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소 내에 있는 한마음체육관에서 민속놀이인 줄다리기, 윷놀이, 제기차기를 하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속놀이가 끝난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다과 등을 먹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문

천안개방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3일 천안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3곳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꾸준히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2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서 부단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교정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직원 각자의 마음속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석방예정자 취업면접 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월 31일 출소예정자 7명에 대하여 석방예정자 취업면접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예정자들은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이미지 메이킹, 면접스피치 교육, 실천 모의면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속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지도하는 취업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석방예정자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구지방교정청



김천소년교도소



밀양구치소



천안교도소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 위문 방문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광주지방교정청은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광주 말밭의 집과 애육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을 찾아 소정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유병철

#### 광주교도소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광주교도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광주교도소 직원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교정청 직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등을 통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개별면접을 거쳐 2월 9일 수탁자가 최종 선정되었다. 광주교도소는 출산장려 대책인 '아이·맘 광주교도소 플랜'의 일환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

전주교도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주교도소장과 직원들은 생활지원금 및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전주영아원에서는 아이돌보기와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을 같이 실시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참여 아래 매년 '나눔미정학회', '사랑앓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봉사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순천교도소

###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웅

#### 순천시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순천교도소는 2월 6일, 순천시 2018년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에 참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김춘오 소장, 직원, 교정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 식당 배식과 환경미화 봉사활동과 함께 과일·떡 나눔을 실시했다. 한편, 13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 사랑나눔회 봉사활동

목포교도소는 2월 12일 아동복지시설인 소전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목포교도소 사랑나눔회는 전 직원들이 매월 성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불우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매월 사랑나눔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위문

군산교도소는 설을 맞아 소외 계층을 위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였다. 이날 위문은 설을 맞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옥정골 보라미봉사단에서 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베데스다 장애인 시설에 각각 20만 원, 옥정·척동마을 독거노인 4가구에 각 5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한사랑 1%클럽에서는 모세스 영아원에 10만 원,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소년소녀가장에게 10만 원을 후원하였다.



정읍교도소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위문

제주교도소는 지난 2월 13일 홍익아동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 위탁가정 등 6개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은 제주교도소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체인 한라교정봉사회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위문금 및 생활용품 전달하였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 준법상 및 장학금 전달

장흥교도소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생 4명에 대한 준법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라미 봉사단의 봉사활동 일환으로 시작된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4회 차로 관내에 위치한 학교의 추천을 받아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20만 원을 매년 전달하고 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 해남교도소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실시

해남교도소 '따뜻 봉사단'은 연탄을 운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해남군 옥천면사무소의 요청을 받아 1월 18일 해남군 옥천면 소재 세 가정에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연탄 600여 장을 직접 배달하며 올해 최악의 폭설 및 한파에 난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함 전달

정읍교도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온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을 찾아 위문금품 등 따뜻함을 전했다. 한편 정읍교도소는 매달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복지 사각시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해남교도소

## NEWS

## 교정공제회

### 공제회원 부담금 증액 및 대여금 자격기준 개선

교정공제회는 제24회 교정공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부담금 최고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대여금 자격기준을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개인신용등급한도 내에서 대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대여 한도 증대로 회원에게 진정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사 정재윤



서울

#### 인문강좌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인문강좌 프로그램 '굿모닝코리아' 운영 업무를 통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하였고, 청렴 UCC 공모전 참여·입상, 러시아어 통역 등을 통한 원활한 외국인 수용자 사망 처리로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에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간호주사 송예순



대전

#### 투철한 의료업무 수행 및 수용자 교정교화와 봉사활동 실천

논산지소 의료계에 근무하면서 철저한 약물관리 및 진료보조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백제종합병원과 '정신건강 주치의 협약'을 체결하여 직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상담을 통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등 의료업무에 철저를 기했다. 또 논산지소 보라미봉사단 창립회원으로 무의탁수용자 등에 대한 영치금 및 생활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교체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국군교도소

### 수용자와 기간장병 합동차례

국군교도소는 2월 16일 설을 맞이하여 기간장병들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합동차례를 실시했다. 또한 민속놀이를 통해 정서소화활동을 하였다. 국군교도소의 기간장병들은 군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정착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이라는 주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영구치소  
교사 정유선



대구

#### 수형자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 방지

여성수용동 정원 140% 이상을 초과하는 과밀수용 상태에도 수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동정관찰을 철저히 하는 등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 상담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였고, 환자파악에도 철저를 기하여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심혈관 질환자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야간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광주교도소  
기계운영주사보 강병관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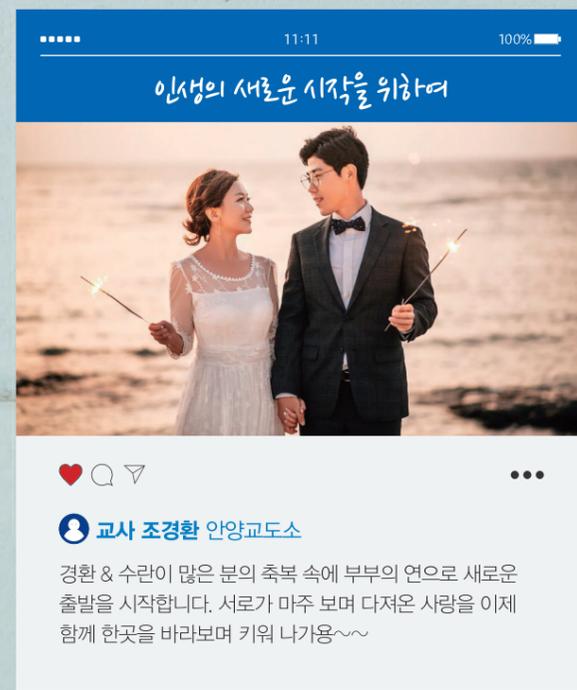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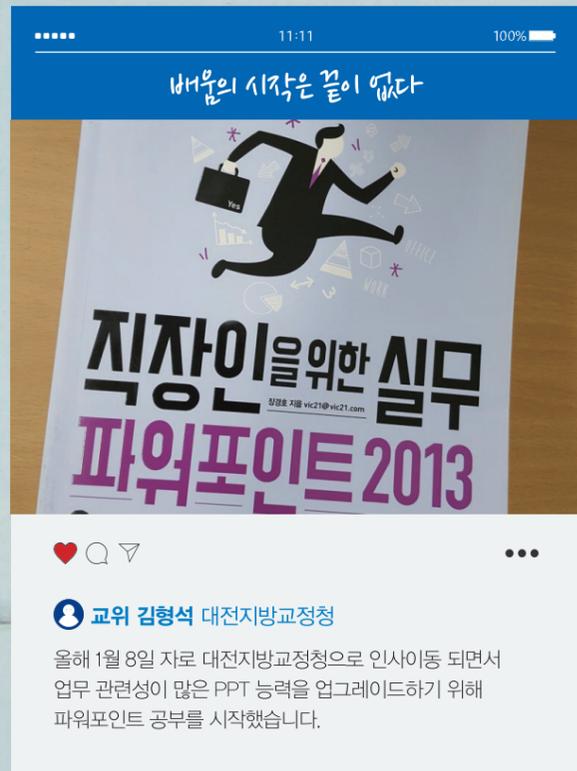
#### 철저한 설비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수용자의 복지와 안전에 기여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 내의 상수도 및 난방 등의 설비 관리 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직원 및 수용자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수용자 도주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매사 솔선수범하여 선·후배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수한 직원이며, 특히, 신속·정확한 업무추진 능력과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비했다.

모범공무원입니다  
소개합니다

# 시작하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3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일상에서 '시작'의 에너지를 만난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간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작'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프트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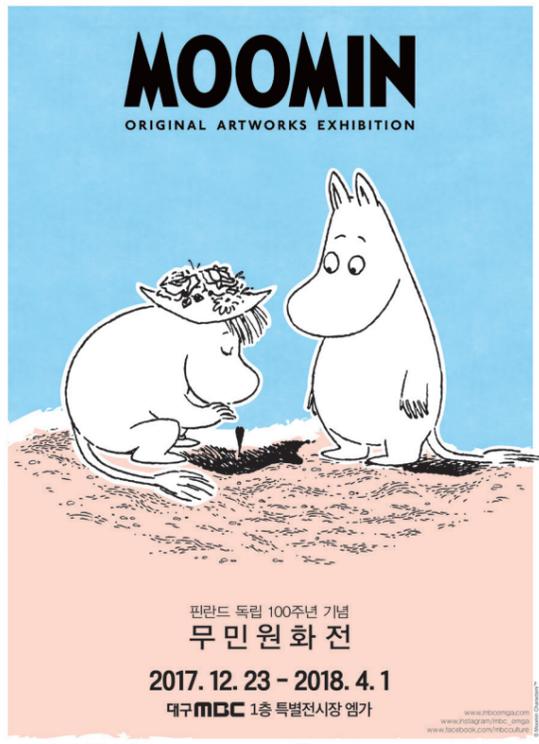
「4월의 테마 컬러는 'GREEN', 주제는 '힐링'입니다.

'힐링'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과 시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이달의 공연

봄의 향기가 피어나는 3월, 싱그러운 감성을 전하는 전시회가 곳곳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다. 춘삼월(春三月), 나들이를 재촉하는 고품격의 작품 속에 빠져보자.



### 무민원화전

기간 : 2017년 12월 23일 ~ 2018년 4월 1일  
장소 : 대구MBC 1층 특별전시장 엠가

핀란드의 위대한 화가 '토베 안손'이 탄생시킨 '무민'의 아름다운 원화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무민원화전>이 국내 최초로 개막한다. 안손이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저작권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70여 년의 무민의 연대기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국내최초인 만큼 엄선된 300여 점의 무민 원화와 오브제, 사진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무민캐릭터스, 핀란드 탐페레무민박물관, 헬싱키시립 미술관, 헬싱키연극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던 주요 작품들이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민원화전은 대구MBC 특별전시장 엠가에서 4월 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 Event

#### 교정공무원을 위한 <무민원화전> 초대권 증정 및 할인 이벤트

- 내용** <무민원화전> 1인 2매 초대권 증정  
**신청 메일**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이름/휴대폰 번호 기재)  
**기간** 3월 23일까지(선착순)  
**티켓수령방법** 당첨축하 문자 확인 ▶ 현장 매표소에서 월간 <교정>과 본인 이름 제시 ▶ 티켓 수령
- 현장 매표소에서 교정공무원 신분증 제시하면 50% 할인 티켓 수령 가능**



### Hi, POP

기간 : 2017년 12월 15일~2018년 4월 15일  
장소 : M컨템포러리 (서울시 강남구 보은사로 120 르 메 르디앙 서울 1층)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로버트 라우센버그, 로버트 인디애나 등 팝아트 대표작가 5인의 주요 작품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초대형 팝아트 전시회. 개성 강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와 더불어 체험공간 '프린트팩토리'에서는 앤디 워홀이 즐겨 사용했던 실크스크린 기법도 체험할 수 있다.



### 김성복 - 도깨비의 꿈

기간 : 2018년 2월 21일~2018년 3월 24일  
장소 : 사비나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9)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입체 설치 작품 전시회로, 작가는 5세 아이부터 80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사람들의 꿈을 드로잉이나 이야기로 담아 그 이미지를 일일이 1,000여 점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도깨비 방망이가 현대인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김성복 작가의 <도깨비의 꿈>은 아이와 함께 즐기기에 손색 없다.

##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 \times - \div$$

# 자치분권

고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요

- $\ominus$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 $\oplus$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ominus$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 $\otimes$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월간 교정 독자 참여 마당에 응모하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1

## 교정 글마당



소설, 시, 수필은 물론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달의 작품으로 선정되어 교정 글마당에 소개된 분께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2

## 교정 인스타그램



'교정 인스타그램'에 <교정> 4월호 주제(Green - 힐링)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일상에서 힐링을 느끼는 순간을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교정 인스타그램 코너에 소개된 분들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1. 참여하고 싶은 글이나 사진(원본)을 준비한다.
2. 근무지, 소속, 직급, 이름을 적어 [correct2015@naver.com](mailto:correct2015@naver.com)으로 보낸다.
3.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법무부 교정본부